

고린도전서(11)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 본문

고전 4:1-5

■ 시작 찬송가

461장(통 519장)

■ 헌금 찬송가

331장(통 375장)

▶ 돌로스(δοῦλος)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고용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돌로스(δοῦλος)’로 쓰이는 ‘종’은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는 소유된 자로 진정한 노예를 의미한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δοῦλος)’이라고 표현하며 ‘나의 소유권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고백한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그 맡기신 것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 아볼로, 게바는 너희의 충성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충성’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성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은 보통 ‘종’이란 뜻의 ‘돌로스(δοῦλος)’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히페레테스(ὑπηρέτης)’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 속한 종(돌로스)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전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엡 1:22-23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바울, 아볼로, 게바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바울, 아볼로, 게바를 각각의 머리로 삼아 파벌을 이루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머리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엡 3:7-9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2)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두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스(oikonomos)’로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감추인 것, 신비(mystery)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전 2: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전 4: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주인이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의 핵심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입니다.

2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 곧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됩니다.

마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
 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딤후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
 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3) 판단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를 어렵게 한 것은 강도와 바다의 위험이 아닌 바울의 의도를 깎아내리고, 가르침을 왜곡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3~4절을 통해 ‘나는 너희들에게 판단 받는 것을 작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판단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의 판단은 작은 일이 됩니다. 오해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작게 여기며 넘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전 4:3-4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
 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양심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옳으심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고전 4: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
 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성을 다하여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정직’과 ‘충성’

구약성경에 정직으로 번역된 단 어들이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로마의 단어입니다.

‘정직’은 인격적인 대상에 의존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면 ‘충성’은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충성은 충성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2018.03.07. 수요기도회 중)

▶ 찬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
드러내어 징계할 아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오늘의 한마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